

2015년 4월 13일 새벽 정리 말씀

금주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지극히 핍박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구시대 사람들이 몰라서 핍박했는데 핍박도 한계가 있습니다.

알고 행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게 되고, 모르고 행하는 자들은 핍박을 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현실과,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행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모르고 행하는 자들은 핍박을 한다. 우리는 알고 행함으로 핍박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면역성도 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핍박이 있어야 믿음의 본질도 더 깨닫게 되고, 핍박이 있으므로 참의 본질도 더 깨닫게 되고, 핍박으로 인해서 무지의 세계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금주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사를 모두 읽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사도행전 사에 예수님 시대 때에 초대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었나? 그를 통해서 지금 제2의 역사 때는, 성약역사 때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보다는 덜하지만 정신적인 핍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핍박도 있지만 사실상은 정신적으로 핍박이 많았습니다. 심정의 십자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시대 때는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실제로 잡아당기고, 잡아가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볼 때 실제로 닳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가라지들이 실제로 잡고, 잡아당긴 사람들은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신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고, 반면에 정신적으로 크나크게 연단하는 기간도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가라지들이 사탄들이 마귀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욱 주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더 매대기침을 당하니 더 구원주가 필요한 것을 느끼고 구원자를 더 찾게 되고,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구원시켜 달라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들은 구원자를 통해서 잡아갈 수 없는, 흑암에서 잡아잡니다.

또 핍박한 바울 선생은, 핍박한 자들은 그 핍박을 통해서 그 후에 다시 돌이키게 되었을 때 그저 미안하고, 그저 과거가 부끄럽고, 그저 난처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저 괴롭고, 회심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때 막 다루지 말고,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들 갖고 열심히 하면 되니까. 회심을 하고 돌이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람이 꼭 회심할 줄 알고, 잘못을 이야기할 줄 알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대신 바울 선생같이 잘 합니다.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나쁘게 보지 말고 귀히 대해 주고, 그리고 잘 붙잡아 주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들도 모를 때는 핍박하게 되고, 주님 모시고 사는 것도 모르면 그야말로 한마디로 웃기게 모시게 되고, 또 모르면 주의 심정을 거스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을 때는 잘못했다고 회심합니다.

선생도 하늘 앞에 마찬가지로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모시지만 나는 또 하늘을 모십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늘을 모시고 가는 입장들입니다.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나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은 전체가 모두 바울 같은 입장입니다. 핍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편은 기존성에 있어서 핍박하는 경우입니다. 바울 같이 유대 종교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안 믿으니까 모르는데 저들이 믿는데 저 사람이 말하니까 맞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냥 청중심에 말만 듣고 핍박합니다. 그들에게는 가서 붙잡고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고, 대화를 해 주어야 됩니다. 놔두면 자꾸 번져가니까 똑똑히 가서 전해 주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전도할 사람을 전도 안 하면 그가 너를 핍박하리라.” 그런 말씀이 잠언에 나옵니다. 그와 같이 모르고 핍박하는 사람을 놔두면 계속 평생 동안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말해 주어야 됩니다. 사도시대 때는 사도들이 가서 과감하게 증거했습니다. 주를 증거하고, 자기입장을 증거하고, 그리고 현실을 분명히 밝혀 말했을 때 많은 수다한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시대> 때 사도들이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병을 고쳐주든지. 그러면 사람이 막 따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 전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실력!

금주의 말씀이 “사도의 정신”인데 사도의 정신이 뭔고 하니, 무슨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정신, 기도의 정신, 항상 새벽 예배를 드리는 정신!

‘사도들의 정신’은 바로 능력을 행하며, 주의 몸이 되어서 행하며, 그리고 주님의 대신자가 되어서 행하며, 그리고 항상 주를 증거하며, 말하며, 중심하며, 그를 머리로 삼고 사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늘 의논하고 상의하고! 우리는 “사도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라고 하면 이 시대의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바로 이 시대는 신부입니다. ‘신부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의 신부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의논하고, 상의하고, 하나 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도 시대의 ‘신랑’으로서 정신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부를 대하는. 항상 함께해 주고 역사해 주고. 선생님이 옆에 있으면 늘 그들을 살피고 돕듯이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발장구만 쳐 주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 주면 되는데 못 맞추고서, 특별히 하나님 나타나서 일해 주는 것, 특별한 것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셨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돕는 것을 알아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돕는 것을 알아 줄 때에 역사를 더 하십니다. 가장 크게 역사하십니다. 도와주는 것을 깨달을 때.

사도들의 정신은 늘 깨닫는 정신이고, 하나님이 행한 것을 아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일을 도와주셨는가? 어떤 것을 해 주셨는가?” 이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정신, 애인의 정신입니다. 애인은 부부일체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해 준다. 도와준다.” 그것입니다.

꼭 여러분들도 하늘의 시대의 ‘사도들’이라면 ‘주님의 정신’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딱 갖고 있으면 몸뚱이는 항상 그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정신 보고서 하나님께서 심판 하십니다. 정신이 나가있으면 죽은 시체라고 합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금주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항상! 항상 적이 온다고 생각하라.”

사도들에게는 늘 적이 왔습니다. 항상 핍박자, 쫓아다니는 사람! 그런 것들을 커버하고, 막고, 울타리를 치고 방비하고 그래야 됩니다.

뱀이 와서 몸을 감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뱀이 어디에 있는가 늘 쳐다보아야 됩니다.

항상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와 같이 사탄 마귀 귀신들을 살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반대자는 있으니까. 그 개인이 아직 복음으로 오기 전에는 항상 반대, 아니면 찬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립으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친 사람들은 완전히 죽어 버렸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나아 버렸든지, 감옥에다 가두어 놓았든지 하기 전에는 항상 발작 병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친 사람은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미친 사람을 다룰 때는 24시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언제 순간 뒤집어질지 모른다.”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미친 사람을 보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가라지들도, 악한 놈들도, 나간 놈들도, 우리를 해하는 놈들도 우리 전군은 항상 전체가 쳐다보고, 근무 서고 보며 완전히 도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대가 되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신부로서 열심히 일하고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치며 능력으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금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정신, 하늘 신부들의 정신을 가지라.” 했습니다. 정신이 해이하면 안 되고, 정신이 빠져나가면 시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신을 주시고, 주의 정신을 주시고, 시대의 정신을 주시고, 사도들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오니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사도의 정신, 시대 인생의 정신, 시대 구원의 정신, 하늘의 사랑하는 자의 정신을 가지려면 배우고 듣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삼위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